

대성에너지 '사랑의 반찬 나눔' 쪽방주민 100가구에 직접 전달

대성에너지(주)(대표이사 강석기)는 4일 직원 8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구 쪽방상당소가 운영하는 마을기업 '따신 밥 한 그릇'에서 쪽방주민 100여 가구에 밀반찬을



직접 만들어 전하는 '사랑의 반찬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대성에너지는 지난 4년 동안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7명 내외의 직원들이 대구쪽방상당소와 함께 반찬을 만들고 지역 내 약 100여 가구 쪽방에 전달해 왔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와 주거환경도 함께 살폈다.

대성에너지 강석기 대표이사는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듯이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의 몸과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오길 바란다"고 다짐했다.

홍준현 기자 newsforyou@msnet.co.kr
기사 작성일 : 2017년 03월 08일